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농협



제1338호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예수 탄생이 희망되길”

성탄절 맞아 성당·교회서 미사·예배

명동대성당·여의도순복음 교회 등에 신자 집결

성탄절을 맞은 25일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날 정오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를 정순택 대주교 집전으로 열었다.

정 대주교는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특별히 전쟁으로 죽음의 공포와 위협 속에 놓여 있는 나라의 국민들과 북녘의 동포들을 포함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과 위로가 필요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큰 희망과 힘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강론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들로서 위엄 가득한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며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 안에 원래부터 내재해 있던 선함을 끌어내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대주교는 이어 “우리 사회에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친교회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의 한 주역으로서 복음을 듣고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

회를, 또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서울대교구는 25일 0시에도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를 열었으며 이에 앞서 명동대성당 앞마당에서는 아기 예수 모형을 말구유에 안치하는 의식인 ‘구유예절’을 행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대성전, 부속 성전, 수도권 지성전 등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거행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낫고 천한 곳에 임하셨다”고 설교했다. 그는 “세상은 신분에 따라 차별을 두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며 “낫아져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 교회는 크리스마스이브인 전날 오후에는 성가대와 성도 등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트리가 설치된 교회 앞 십자가 광장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했다.

사랑의교회는 이날 세 차례에 걸쳐 ‘성탄축하 온가족연합예배’를 올리면서 어린이 130명을 대상으로 한 유아세례식을 거행했다.

/ 김채윤 기자

미래는 그냥 오지 않는다

Hello, 미래!

기다리기만 한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될 미래산업
KDB산업은행이
키워가겠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 산업은행

尹, 정동제일교회서 성탄 예배…“국가가 좋은 선물 되게 노력”

연휴 잇단 사고소식에 “안타깝다…공직자들, 국민 지키는 데 최선 다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교회에 미리 도착해 천영태 담임목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1시간가량 예배를 드린 뒤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한 어르신이 “응원한다”며 인사하자, 윤 대통령은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요청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고, 한 어린이로부터 사랑을 선물 받기도 했다. 이날 예배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이 동행했다.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 헨리 아펜젤러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 교회다. 교회 내 벤엘예배당은 1977년 사적 제256호로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는 유년 시절 다녔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한 바 있다.

/ 송원기 기자

대통령실, 김여사 특검 거부권 무게…‘조건부 수용’도 부정적

“총선용 정략적 공세” 판단…김여사 연말 공개활동 대폭 줄어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국회 상황과 여론을 살피고 있다.

대통령실은 아직 특검법 통과 전이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건부 수용안에도 선을 긋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윤 대통령을 훈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약 2년간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민주당이 이 시점에 돌출되도록 한 것은 정략적이란 지적이다.

최근 한 지명자가 이 특검법을 민주당의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한 것과도 일치한다.

이 때문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

에 출연해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흡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조건부 수용안을 야당에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은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예고대로 김 여사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과 관련해 결단할 경우, 그 배경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김 여사 특검법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김 여사의 연말 공개 활동은 두드러지게 뜬금진 모습이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귀국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성탄미사 및 예배 일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작년 말 윤 대통령의 성탄 예배에 동행하고 쪽방촌 봉사 등 소외계층 중심 이웃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여권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안에 격노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 서종익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왼쪽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기획재정부 최상목,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 발표에 입장하고 있다.

尹대통령, 박상우 국토·강정애 보훈부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2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인 지난 22일 박 장관과 강 장관 임명인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지난 23일 임기를 시작했으며 강 장관은 26일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할 예정이다.

/ 이혜영 기자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입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교육 시민단체 연대 주최로 2024학년도 수능 결과에 대한 논평 및 대안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수능 절대평가 확대 필요

국교위 권고 철회해야”

교육 시민단체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고교 내신 절대평가 확대를 요구하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육 시

민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국교위는 편향적 대입 개편 시안 권고안을

무를 유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고교 내신에서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대부분 유지한 채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 선택 9개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한 국교위 권

고를 두고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다”고 직격했다.

이들 단체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탐구를 통한 진정한

국교위 권고안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무책임함의 극치

철회하고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국교위는 지난 22일 현 중학교 2학년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수능에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고, 교육부 시안대로 국어·수학 영역 상대평가를 유지한 채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국교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2028 대입 개편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수능 심화수학을 제외하는 안 이외에 상대평가에 대한 우려와 절대평가에 대한 강렬한 요구는 전면 거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어도 일부 수능 영역만이 라도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안에 대한 협의조차 끌어내지 못한 국교위는 직

과학 수업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 선택과목 전 과목을

절대평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선 융합 선택과목을 개설할 여력이 거의 없다”면서 국교위가 학교 현장을 모른 채 필요 없는 권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교위 권고안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무책임함의 극치”라며 “국교위는 지금이라도 권고안을 철회하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럴 수 없다면 교육부라도 출속으로 대입 개편 방안을 처리하지 말고, 충분히 협의해 원래 예정된 내년 2월에 안정적으로 확정해 공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신재일 기자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마약 혐의’ 이선균, 19시간 고강도 밤샘 조사…새벽 귀가

이씨 “저와 공갈법 중 누구 진술에 신빙성 있는지 잘 판단해 달라”



경찰 조사 출석하는 이선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한 지난 10월 28일과 3시간간 빨간 진술한 지난 달 4일 2차 조사에 이은 3번째다.

전날 오전 10시께 시작한 조사가 길어 지면서 경찰은 이씨 동의를 받고 이날 오전 5시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심야와 새벽 시간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조사를 금지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 동의를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이씨는 이날 3차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공갈 사건)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며 “이제 앞으로 경찰이 저와 공갈법들 가운데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히 말씀드렸다”고만 답했다. 이어 “마약 투약의 고의성을 아직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반복한 뒤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혐의를 먼저 조사한 뒤 그가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앞서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A씨 등 2

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의 공범을 최근 특정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3차 조사에서 확보한 이씨 진술 내용을 분석해 미리 확보한 증거물을 맞춰본 뒤 추가 소환은 하지 않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김민재 기자

野 신현영, ‘마약중독자 치료기관 지원 확충’ 입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5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에 정부 예산 등의 지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약류관리법 소관 부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중심의 총괄적인 정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치료 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현황 조사·인력양성 및 공급, 시설 및 장비 개선 등 체계적 지원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있는 치료 보호기관은 24개소이지만, 실제 정상 운영되는 기관은 2개소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경영난으로 폐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 보호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공공 영역의 책무를 수행하는 민간 기관을 국가가 적극 나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지원 기자



국방과학연구소로 들어가는 화재조사 차

‘보관 중 탄두서 시작’ 국방과학연 폭발

27일 합동 감식… 26일 부검

지난 2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에서 탄두 폭발로 직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에 나선다.

대전경찰청은 오는 27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등과 합동해 사고가 난 ADD 실험동에 대한 현장 감식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26일 오전 부검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건물은 제조된 화약을 수송 보관하다가 건조 후 탄두 형상을 만드는 곳이다.

사고 직전 40kg가량의 탄두 2개를 내부 보관 중이었는데, 이 중 하나가 원인 미상의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탄두의 구체적인 성분·제원을 확인하는 한편, 현장 합동 감식을 통해 폭발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21일 낮 12시54분께 ADD 실험동 내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현장에

있던 60대 직원 A씨가 숨졌다.

사고 직전 A씨가 동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타는 냄새가 난다. 내부를 확인하겠디”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내부에 폐쇄회로(CC) TV가 없고,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A씨가 사고 당시 실제 실험이나 작업 중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 등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테러 가능성은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테러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본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굉음과 함께 실험동 건물 층면이 반파될 만큼 충격이 커던 탓에 A씨가 폭발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

ADD는 군용 병기·장비·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가시설이다. 소총부터 전차, 장갑차, 포,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까지 다양한 무기를 다룬다.

/ 오성은 기자

여신도들 성폭행·추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

“성폭행 사실 없고 재림예수라 칭한 적도 없어”…검찰은 징역 30년 구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총장 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로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도 중형 선고 사유로 고려됐다.

정명석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



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2018년 2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이 시작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이민혁 기자

경찰,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 지라시 유포자 추적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한 지라시(소문을 담은 쪽지)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 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김 실장과 관련한 지라시가 하위 사실이며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지라시에는 ‘기업 회장 인사 개입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채현성 기자

한화생명 The 걱정없는 치매보험(무배당)

080.365.6363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여자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범인 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경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종신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택 특약 기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및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www.hanwhalife.com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3-04104호 (2023-09-05 ~ 2024-09-04)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23-08-103

한화생명

정세균·김부겸 조찬 회동…“민주당 공천 잡음에 큰 우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식'에서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가 24일 조찬 회동을 갖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공천 잡음과 관련해 우려를 공유했다.

관리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축적되면 결국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통합 위해 노력해야…과도한 이낙연 공격은 안돼”

‘이낙연 신당’에 우려 공유…‘3총리 회동’ 여부에 “상황 보자”

양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총선 공천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 잇달아 잡음이 터져 나오는 데 대해 두 전 총리 사이에서 큰 우려가 오갔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우려한 대로 (공천을 두고) 일이 발생하니 큰 혼란이 된다”며 “당에서 잘 풀어나가고,

앞서 민주당 중앙당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 22일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이의를 신청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에게 ‘기각’을 통보했다.

김 전 시장은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인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경기 시흥을)에서, 최 전 시장은 친명

계 초선 한준호 의원 지역구(경기 고양을)에서 각각 출마를 준비해왔다.

이율리 두 전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눴다고 한다.

다만, 당내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사쿠리’라며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신당 반대 연판장이 도는 상황을 두고 “이 전 대표는 당의 원로인데 과도한 언사로 공격해선 안 된다”는 인식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당의 통합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하고,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만 현 상황에 진전이 있다”는 취지로 대화가 오갔다고 양측 관계자들은 전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3총리’(이낙연·정세균·김부겸) 간 회동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관계자는 “두 전 총리가 ‘필요한 경우 이 전 대표를 만나 설득할 수 있다, 앞으로 상황을 보자’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만 오갔다”고 전했다.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열린 성탄전야 행사에 참석했다.



유튜브 속풀 콘텐츠에 출연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MZ세대 속풀 출연해 ‘위글위글’ 댄스 챌린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MZ세대의 속풀(짧은 영상) 콘텐츠에 출연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MZ세대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펼쳐진다. 나 전 의원은 서울 동작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나 전 의원은 23일 한 유튜브 채널에 ‘ENFJ 서울대 판사 출신 정치인 나경원 길거리 캐스팅’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 등장했다.

이 유튜브 채널은 주로 외모가 뛰어난 남녀들을 길거리에서 즉석 섭외해 인터뷰하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이 채널에서 서울대 로고가 적힌 학과 점퍼를 입은 채 최근 유행하는 ‘위글위글’ 댄스 챌린지, 띠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밈’ 말장난 챌린지 등을 선보였다.

나 전 의원은 정치인 중 ‘미모 원톱(1순위)’을 꼽아달란 질문에 “나인가?”라고 웃으면서 반문한 뒤 “잘생긴 사람들 꽤 있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스타트업이 성장하도록,
NH가 손을 보탠다**

기술력이 있어도, 잠재력이 있어도.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에겐 금융의 손길만을 절실히 찾을 것이 또 있을까요?
NH농협금융은 오픈 비즈니스 데이와 디지털 협력장을 통해 스타트업에게 금융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이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NH농협금융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기술력이 있어도, 잠재력이 있어도.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에겐 금융의 손길만을 절실히 찾을 것이 또 있을까요?
NH농협금융은 오픈 비즈니스 데이와 디지털 협력장을 통해 스타트업에게 금융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이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NH농협금융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자산운용 NH농협리스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윤재옥 “한동훈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 맞는 당 되겠다”

책임당원에 문자 메시지…“당원께 자랑스런 정당 되도록 최선”



책임당원에 문자 메시지…“당원께 자랑스런 정당 되도록 최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정치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당, 당원들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책임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지난 10여일간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장을 추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책임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지난 10여일간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장을 추천

與하태경 “789 비대위” 핵심은 낡은 이념

아닌 시대정신 구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4일 “789 비대위”的 핵심은 새로운 시대 정신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며 “낡은 이념에 얹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끌어야 당도 살고 한동훈 비대위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789세대(1970·80·90년대생)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되 새로운 시대정신을 잘 대변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전 세대라도 중용하는 것이 성공확률을 더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하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주축인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그룹과

대비시켜 국민의힘 비대위를 1970·80·90년대생을 중심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이 제안과 관련해 이날 “생물학적 나이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나이가 많아도 생각은 젊을 수 있고 청년이라도 끈대가 될 수 있다”며 “789세대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세대교체로 우리 당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789세대라도 정치관이나 이념이 ‘올드’하다면 그 비대위는 789세대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 당이 몇 해 전부터 꾸준히 견지해온 혁신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고, 26일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계획이다.

재선 도전 앞둔 바이든, 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하위

3년간 지지율 평균도 꼴찌…경제 상황·제3후보 변수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0%로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집권 1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3년차 말인 2011년 12월 당시 지지율 46%와 비교해 저조한 수준일 뿐 아니라, 재선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19년 12월 당시 지지율 4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까지 지지율은 44%다. 이는 같은 시기 트럼프(44%), 오바마(48%), 조지 W. 부시(48%), 빌 클린턴 전 대통령(56.5%)과 비교해 최하위다.

결과적으로 대선을 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현재 및 전체 평균 모두 지지율 측면에서 스스로 꺾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꼴찌’ 성적표를 받아든 형국이다.

내년 대선 리턴 매치가 유력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가상 대결에서 이 같은 추세는 확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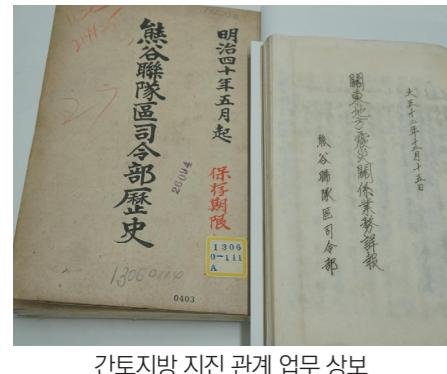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이날 기준 전국 단위 508개 여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새 日 공문서 확인…“40여명 모조리 살해”

일본군, 지진 사흘 뒤 사이타마현 학살 기록…“조선인 습격·방화 없었다” 언급해



간토지방 지진 관계 업무 상보

100년 전 발생한 간토대지진 직후 일본

인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학살 사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일본 공문서가 확인됐다

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언론인 와타나베 노부유키 씨는 방위성 방위연구소 사료실에서 간토대지진 직후 조선인 40여 명이 살해됐다고 기록된 ‘간토지방 지진 관계 업무 상보’를 찾아냈다.

이 문서는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서부 지역에서 징병과 재향군인 관리를 담당한 육군 지방기관인 구마가야연대구사령부가 작성했으며, 1923년 12월 15일에 상부 기관인 육군성에 제출됐다.

조선인 학살은 간토대지진 사흘 뒤인 1923년 9월 4일 경찰관들이 조선인 200여 명을 사이타마현 우라와에서 후카야·훈조 경찰서 방면으로 이송하던 중 일어났다.

구마가야사령부는 당시 낮에 이동하지 못한 조선인 40여 명이 해가 저물자 “살기를 품은 군중에 의해 모조리 살해됐다”고 문서에 적었다. 문서는 이 사건을 ‘선인(鮮人·조선인을 비해 칭한 말) 학살’, ‘불상사·불법행위’로 표현했다.

아울러 “조선인 습격은 없었다. 방화도 없었다. 독을 (우물에) 넣었다는 것도 들

지 않았다”고 기술해 당시 일본 사회에 떠돌 조선인 습격·방화 소문이 적어도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령부는 밤에 학살이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참고 소견으로 조선인 이송은 밤을 피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밤에 조선인을 이송하면 어두운 곳에서 사람이 살해되는 참상을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 문서에서 재향군인회 구마가야 지부장은 조선인 관련 협소문에 빠진 사람들을 “사리를 모르는 몽매한 무리”라고 비판했다.

그간 학살 중심 세력으로 알려졌던 재향군인의 조선인 인식이 지역에 따라 달랐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와타나베 씨는 “조선인 학

살이 일어난 것은 확실하지만, 집단적 정신 이상이나 권력 탄압 등 기준 견해로는 학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시야를 넓혀 학살의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 정부는 간토대지진 100주년을 올해 여러 차례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매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언급과 학살 책임을 회피했다.

/ 민영철 기자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는 인플레이션을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 본인을 둘러싼 고령 논란,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 대선 본선 시작 이후 대법원의 낙태 판결을 비롯해 경제 상황 개선 등 여러 변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현재 지지율이 고착화하고 젊은층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차를 확실히 벌리지 못한 상태에서 제3후보가 출마할 경우 전망은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한 전문가는 “트럼프는 미국인 절대 다수의 지지는 얻을 수 없는 정치인”이라며 “그는 덧셈이 아닌 뺄셈으로 만 승리할 수 있다”며 제3후보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최영석 기자



격추한 드론 잔해 앞에 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첫 ‘12월25일 성탄절’ 맞은 우크라 젤렌스키 “결국 악은 패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교회의 영향에서 벗어나 100여년 만에 처음으로 12월 25일에 성탄절을 기념하기로 한 가운데, 러시아는 성탄 이브를 맞은 우크라이나 각지에 포격을 가하고 드론 공격을 퍼부었다고 DPA 통신, 영국 가디언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성탄절 기념 대국민 연설에서 “결국 악은 패배할 것”이라며 항전 의지를 거듭 다졌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24일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을 포격했다.

이 공격으로 87세 남성 등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주택과 민간 의료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고, 지역의 가스관에도 불이 붙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적이 우리 국민을 죽이고 우리 땅에 남아 있는 한 우리에게 휴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하르키

우 지역의 20개 마을에도 포격을 가해 주민 2명이 부상했고, 미콜라이우, 키로보흐라드,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흐멜니츠키, 자포리자 지역도 드론으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24일 오전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에서 보낸 15대의 드론 중 14대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공격이 계속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 중심부의 성 소피아 대성당 앞에서 활동된 성탄 이브 기념 연설에서 전장의 병사를 위로하며 항전 의지를 꾀했다.

그는 “결국 어둠은 질 것이고, 악은 패배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유를 위해, 우리의 승리를 위해,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 연휴 기간 온 나라가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빛의 전사들, 우크라이나의 수호천사들은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기적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경 기자

미백악관 “北 ICBM 차단 핵심은 ‘돈줄’인 가상자산 해킹 근절”

뉴버거 NSC 부보좌관 美 매체 인터뷰…“北 수익, 공격적으로 차단해야”



앤 뉴버거 부보좌관

는 국도로 고도화돼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북한이 국제적 안보 저해 행위로 타깃을 이동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의 해커들은 능력있고, 장의적이며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무기 개발을 위한 사이버 자금 조달 행위에 집중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들 활동에 따른 수익성을 차단하는 것이 해킹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목표는 북한 정권의 해킹에 따른 이윤을 공격적으로 끊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해킹 행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해 왔다.

최근에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해킹조직 ‘김수끼’를 비롯한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한국 및 일본, 호주와 함께한 연쇄 제재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 역시 국가 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 임성준 기자

르면 북한이 올해 해킹한 가상자산 규모는 모두 17억 달러(약 2조 2천 150억 원)에 이른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비용의 절반 가량이 이 같은 가상자산 해킹에서 충당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의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불법 사이버 활동을 적시해 이에 대한 공동의 차단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 북한의 해킹 행위가 가상자산 절도에 국한돼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공격 기술 자체

SK텔레콤 장기 우수 고객님만의 특별한 혜택

special T

온라인 시간 함께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문을 접으면 인사를 합니다

SK텔레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고객님께 보답하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장기 우수 고객 케어 프로그램
special T

앞으로도 SK텔레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특별해질 수 있도록
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SK telecom

장기 우수 고객 케어 프로그램 **special T (스페셜 T)**

데이터 추가 혜택

이용 기간 5년 이상 장기 우수 고객으로 기존 금융 카드에 대해
매년 가입하신 달에 가입 연수증금 추가 데이터 증정

장기 우수 고객 전용 이벤트

새해 인사 이모티콘 증정 특별 할인 프로모션(최대 15% 할인) 제공
연간 낮은 금액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자동 송금

T 멤버십 VIP 입그레이드

이용 기간 10년 이상 장기 우수 고객에게 시즌별 추가 혜택
이용 기간 30년 이상 장기 우수 고객님은 조건 없이 VIP 송금

T 월드 확인하기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진짜 하나뿐인 내 편 맞네!”

소상공인과 함께 올고 옷으며
늘 곁에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상도동 ‘시장떡방앗간’ 윤세권 사장님

소상공인의 하나뿐인 내 편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금융비용 절감 지원

실패 없는 도전을 위한
청년 창업 컨설팅 지원

지역과 상생을 위한
지역 상권 살리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펀크 |

막오른 포스코 차기회장 선출전…최정우 회장 재연임 ‘주목’

포스코 내외부 인사 하마평 한창



최정우 포스코 회장

재계 5위 포스코그룹이 차기 회장 인선 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포스코 차기 리더십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벌써 자천·타천으로 포스코 내부의 전·현직 인사와 외부 인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CEO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내년 2월이면 최종 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5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지난 21일 임시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포스코홀딩스의 CEO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 ‘롱리스트’(long list) 작성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다. 후보자 추천은 자천, 타천, 추천위 자체 결정 등으로 이뤄진다.

지난 19일 새로운 회장 선임 방식이 도입되면서 최정우 현 회장의 연임 관련 의사 표명과 무관하게 차기 회장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CEO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는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준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권태균 전 조달청장, 박희재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손성규 연세대 교수,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유

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이 자연스럽게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우선 거론되고 있다. 그룹 재무통으로 꼽히는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도 거론된다.

이른바 ‘오비’(OB)로 불리는 포스코 출신 인사들의 귀환도 점쳐진다.

황은연 전 포스코 인재창조원장과 조정명 전 포스코플랜텍 사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역시 이차전지 분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꾀하는 포스코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본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CEO후보추천위는 회장 후보군 발굴을 위해 내부 회장 육성 프로그램인 ‘탑 텔런트 프로그램’을 거친 임원진과 외부의 주요 주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유수 서치펌으로부터도 후보를 추천받는다.

후보추천위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롱리스트를 꾸리고, 이번에 신설된 회장 후보자격 요건 기준에 따라 후보군을 검증한다. 후보추천위가 제시한 회장 후보 자격 요건은 경영 역량, 산업 전문성, 글로벌

역량, 리더십, 정직성·윤리 등 5가지다. 후보자가 포스코그룹에 어떤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지를 바탕으로 전략적 사고·의사 결정 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 그룹 핵심 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미래 신기술 이해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후보추천위는 롱리스트를 바탕으로 ‘회장 후보 인선 자문단’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1월 말 후보군을 5명 내외로 압축해 ‘숏리스트’(short list)를 작성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이어 내년 2월에는 이를 ‘파이널리스트’(final list)로 좁혀 최종 후보 1명을 확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

최종 후보가 추천되면 내년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회장으로 선임된다.

최정우 회장의 재연임 도전 여부가 여전히 관심인 가운데 재계의 한 관계자는 “본인이 거취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연임 도전 의사를 밝혀 혼여 프리미엄을 누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고, 퇴진 의사를 공표해 레임덕을 자초할 필요도 없어졌다”며 “숏리스트 공개 시점에 자연스럽게 거취 관련 내용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1년 1회’ 건보 적용 스케일링 이달 안에 있으세요

올해 들어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해가 지나기 전에 치과를 찾는 게 좋겠다. 스케일링은 일 년에 한 차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치석은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을 유발하고, 종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 기준 지난해 치과에 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앓은 질환이기도 하다.

치은염은 잇몸을 지칭하는 치은에 생기는 염증이고, 치은염을 방지하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 주위까지 진행된 치주염으로 악화한다. 잇몸뼈까지 염증이 번지면 치아를 아예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황우진 치협 이사는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해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을 제거하기 어렵다”며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알고 꾸준히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영찬 기자

“스마트폰 이용자 5G가 첫 과반…통신비 4년 만에 첫 감소”

2023 한국미디어패널조사…집 전화·라디오·데스크톱 보유 감소세



아이폰15 시리즈, 드디어 국내 출시

조사됐다.

개인 휴대전화 평균 이용료는 올해 4만 7천원으로 지난해(4만7천600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 조사에서 통신비 지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유선 인터넷 요금도 지난해(1만9천700원)보다 살짝 줄어들었다. 가구당 TV 보유율은 99.1%로 작년(99.2%)과 비슷했으나, 데스크톱 컴퓨터(52.5%→50.8%)와 라디오(2.7%→1.2%) 보유율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태블릿PC(31.2%→33.4%)와 노트북 컴퓨터(34.1%→35.9%)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증가세다.

서비스별 이용률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58.1%, 인스턴트 메신저가 90.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국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한 SNS는 인스타그램(48.6%)으로 작년보다 이용률이 7.2% 포인트 늘어났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률은

전년 대비 2.7%포인트 증가한 88.1%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OTT 서비스로는 유튜브가 77.5%로 넷플릭스(14.2%)를 큰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지켰다. 매체별 평균 사용 시간은 TV 2시간58분, 전화기 2시간29분, 컴퓨터 1시간22분, 종이매체 32분의 순으로 조사됐다.

/ 강효성 기자

사람, 그곳에 DB의 꿈이 있다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드는 꿈
고객의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금융을 만드는 꿈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꿈

DB 모두의 마음 속엔 꿈이 있습니다



3천억원 횡령사건에 화들짝…BNK금융그룹, 내부통제 강화

장기근무 직원 대폭 물갈이하고 CFO 영입, 부산·경남은행 인사교류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자금을 관리하는 간부가 3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자 BNK금융그룹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24일 BNK금융그룹에 따르면 BNK금융그룹은 지난 19일과 22일 단행한 지주와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털의 경영전략부문에서 재무기능을 폐지해 신설한 그룹재무부문 산하에 배치했다.

그러면서 권재중 전 JB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주 그룹재무부문장(부사장)으로 영입했고, 권부장에게는 경남은행 부행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오상호 부산은행 자산관리본부장(상무)과 황재철 경남은행 자산관리본부

장(상무)을 맞바꿔 분위기를 쇄신하기도 했다.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전그룹사에 윤리경영부를 신설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문으로 근무하던 이모(51)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3천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와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52)씨 등은 빼돌린 자금 가운데 2천711억원을 횡령한 PF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고, 나머지 378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유정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의 푸른색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하고 싶은 거 다~해 연금 들고 나서

즐기는 인생엔 연금이 기본이니까!



연말정산도 돌려받는 지금이
연금하기 좋을 때다

투자를 뚝딱! 깨비증권



최대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비대면 계좌개설하면
평생 수수료 면제
(퇴직금/개인납입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KB증권 IRP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4469호(2023년 12월 8일~2024년 12월 7일)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환율 변동>,<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펀드보수 및 유관기관 수수료는 별도 발생됩니다.

KB증권

서울시, 전국 최초 주요시설 전자기파 방호대책…단계별 대응

국가행정망 장애·북핵 고도화 대비…필수 인프라 예방·유지·신속복구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심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EMP(고출력 전자기파) 방호대책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국가 행정망 장애 사고와 북핵 EMP 위협 고도화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시민 안전 대책이다.

EMP는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파장이 필스 형태로 방출되는 고출력 전자기파다. 수백~수천km 이내의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 통신·교통 수단, 공장 설비 등의 내부 회로를 순간적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시켜 오작동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EMP와 같은 전자적 침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협과 디지털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국립전파연구원과 EMP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시민 피해 영향도와 기반 시설 중요도 등을 고려해 주요 기반 시설 36곳을 선정했다.

3월부터는 주요 기반 시설 36곳 중 13개 시설을 찾아 EMP 설비 활용 실증 등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평가했다. 그 결과 13곳 모두 핵·비핵 EMP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 북 EMP 위협에 따른 서울시 도시기능 유지방안 포럼

이에 시는 전기·통신·수도·교통 등 필수 기반 시설(인프라)을 항상 유지하고 비상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단계적 대응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범위가 넓고 영향력이 큰 핵 EMP의 경우 민·관 공동 노력이 필요한 만큼 시 소관 시설의 방호대책을 세우고 추후

다른 기반 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도심 주요 시설뿐만 아니라 전기 등을 공급하는 지원시설도 신속 복구 체계를 마련하고 EMP 공격에 대한 시민 행동요

령과 안전 매뉴얼 마련을 유관기관과 민간이 주진하도록 지원한다.

1단계 도입, 2단계 확대, 3단계 민관 협력 순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방호 우선 시설 36개소, 2단계는 주요 기반 시설 629개소, 3단계는 변전소·통신망 등 민간 지원시설과 개인(안전매뉴얼·행동요령)이 대상이다.

또 비핵 EMP 공격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호대책을 위해 사전 예방 활동과 복원력을 중심으로 한 ▲ 관리적 ▲ 물리적 ▲ 기술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관리적 방안은 EMP 관련 정책 수립, 경

각심 환기, 방호, 대응 교육 등이다.

시는 우선 '주요 기반 시설 대상 유형별 EMP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유관 부서에서는 시의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을 검토해 EMP 영향이 예상될 경우 재난 유형에 따라 매뉴얼에 EMP 방호 대책을 추가한다. 물리적 방안은 주요 기반 시설 내에 엑스레이 검출기를 설치해 수하물, 차량, 방문자 등을 통제하는 계획이다. 기술적 방안은 차폐 시스템 구축과 EMP 필터 부착 등을 통한 전파 진행경로 환경 차단 등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0월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의 장시간 중단 사태에서 재난·비상 대책 중 EMP 공격에 대한 방호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안보 시리즈 행사 2탄으로 '북 EMP 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안보 포럼'에서도 EMP 방호대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실행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 시장은 "이번 비핵화 EMP 대비 체계를 점차 핵 EMP 대응 체계로 고도화하면서 시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메타버스 기술관'

강원도, 첨단기술 체험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27일 준공

새해 1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기간 정식 운영 예정

각화, 생성형 AI 등 메타버스 기술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메타버스 스포츠관은 스켈레톤, 루지, 봅슬레이, 스노보드, 알파인스키, 컬링, 스피드스케이팅 등 7개 동계 종목을 최첨단 ICT 기술로 구현한다.

도는 새해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리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기간 메타버스 체험관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오전에는 도슨트 안내를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오후는 자유 관람으로 운영한다.

예약은 홈페이지(www.gnmetaverse.or.kr)를 통해 가능하다.

곽일규 미래산업국장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메타버스로 소통·체험하는 첨단기술 올림픽으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최준용 기자

경기도, 내년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최대 50만원

공난포 등 난임시술 지원 대상 제외 5천700명 보충 지원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경기도는 내년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공난포(과태관 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등으로 난임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보충적으로 도가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5천752명으로 추산하고 본인 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28억7천600만원)는 도(75%)와 시군(25%)이 분담한다.

앞서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옛 인구 2.0위원회)는 지난 8월 도민참여단의 건의에 따라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내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했다.

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으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 2분기부터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년치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내년 1분

기도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지난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서고 있다.

/ 강희성 기자

한강 페스티벌

Hangang River Festival WINTER

2023.12.22. ~ 12.31.

festival.seoul.go.kr/hangang

부르면 온다…수요응답형 창원 '누비다 버스' 운행 한 달 '호평'

"이동시간 줄고 교통비 아껴 일석이조"…가입자 3천명 넘어서

"출퇴근할 때마다 택시를 탈까 고민이었는데 누비다 버스가 생기면서 그런 고민은 사라졌어요."

수요응답형(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서비스인 '누비다 버스'가 시범운영에 돌입한 지 한 달째인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중앙역 앞. 이곳에서 누비다 버스를 타던 직장인 서모(45) 씨는 이같이 말했다.

누비다 버스는 소형 승합차로 창원중앙역과 종대로, 창원병원 구역에 있는 54개 버스정류장에서 탑승객이 원하는 특정 코스를 운행한다.

탑승객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버스를 호출하면 수요에 맞게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를 탄력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예전에는 버스와 택시의 중간 형태 이동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앞선 서씨는 창원에서 기차를 타고 진주로 출퇴근한다.

그는 "창원중앙역과 상남동 자택까지 비교적 짧은 거리에 연결된 시내버스 노선 대부분이 순환노선이어서 매번 버스에서 30~40분을 보냈지만 누비다 버스로 이동 시간이 확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로 7천원 정도 나오는 거리를 버스로 탈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덧붙였다.

누비다 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은 일반 시내버스 노선이 창원대로·원이대로·창이대로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밀집됐다.

반면 해당 구간에는 남북으로 이동하는 일반 시내버스 노선이 취약해 통행이 불편하다. 특히 구간 내 있는 창원중앙역은 많



은 승객이 이용함에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점 등이 고려돼 현재와 같은 누비다 버스 구간이 정해졌다.

시민 호평은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23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누비다 버스 가입자 수는 3천명을 넘어섰다. 4주 차인 11월 둘째 주 하루 평균 승객 수는 122명을 기록했다. 12인승이지만 안전 문제로 최대 승객 9명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 3대만 운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운행 시간(오전 6시~오후 10시) 내내 손님이 몰려드는 셈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당장 차량 수를 늘릴 계획은 없지만, 정류장 조정 등을 통해 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5월 21일까지 누비다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 최민용 기자



BNK 부산은행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02.16 – 25

**BEXCO
BUSAN
KOREA**



BUSAN 2024



WORLD TEAM TABLE TENNIS CHAMPIONSHIPS FINALS

이범석 청주시장 “눈썰매장 붕괴 사고 부상자 최대한 지원”

시, 지역 다른 썰매장과 적설 취약 구조물도 안전점검



사고수습대책본부 회의

충북 청주시는 25일 오전 농업기술센터에서 눈썰매장 사고수습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부상자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석 시장은 이 자리에서 “(농기센터 눈썰매장 이동통로 붕괴)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해 매우 송구하다. 부상자들이 치료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시민안전보증 등 최대한의 지원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눈썰매장 운영 유경험자와 관련 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해 사고원인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덧붙였다.

시는 눈썰매장 부상자들이 불편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살피고 있고,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상담도 준비 중이다.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상자는 보험사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원의 시민안전보험금(붕괴상해후유장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썰매장 운영 대행업체가 가입한 보험 등 다른 지원 방안도 파악 중이다. / 노건우 기자

한총리, 신신예식장 ‘깜짝 주례’…“흰머리 파뿌리 되도록 해로”

무료 결혼 예식 치러준
故 백낙삼씨 뜻 기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신신예식장을 찾아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를 위해 ‘깜짝 주례’를 섰다.

신신예식장은 창업주 고(故) 백낙삼 대표가 지난 4월 별세할 때까지 50여년 간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무료 예식을 치러준 곳으로 유명하다. 아들인 백남문 씨가 2대 대표를 맡아 고인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한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백 대표가 떠나신 뒤 부인과 아드님 이 고인의 유지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이



신신예식장 찾아 ‘깜짝 주례’하는 한덕수 총리

야기를 듣고, 시간이 나면 작은 힘이라도 꼭 보태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성탄절 이브인 오늘 인연이 닿았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26년간 함께 살다가 이날 신신예식장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례를 맡기로 했

다.

부부가 혹시 부담을 느낄까 봐 한총리가 주례를 본다는 사실을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한총리는 예식 전에 도착해 “오늘 주례를 맡게 됐다”고 인사하니 부부는 물론 온 가족이 깜짝 놀라며 기뻐했다고 한다.

한총리는 주례사에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자식들 반듯하게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오셨으니 충분히 자부심 가지실 만하다”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희끗희끗한 머리가 마저 파 뿌리 되도록 해로하시라”고 말했다.

이어 “사랑 중에 제일 애恸한 사람은 오래된 사랑”이라며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일하며 온갖 풍파를 함께 견딘 분들이 서리 내린 머리로 식을 올리는 모습이 징했다”고 말했다. / 김희진 기자



부산지역 고령자의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토론회

부산지역 고령자 “더 일하고 싶다”

71세까지 노동 가능

부산에 사는 고령자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지역 고령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 패널 조사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은 인구 대비 55세 이상인 고령자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다.

조사 결과 부산의 고령자 취업률은 지난해 32.7%로 전국 고령자 평균 취업률 31.6%보다 1.1%포인트 높았다.

산업별로 보면 기타·서비스업이 4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20.1%), 제조업(14.0%), 전기·운수·통신·금융(13.2%) 순이다.

주당 노동시간은 34.9시간으로 전국 34.8시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권정석 기자

부산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고령자들이 많았다.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는 비율은 0.5%로 전국 1.5%보다 1%포인트 낮았다.

은퇴 만족도는 63.3%로 전국 77.4%보다 14.1%포인트 낮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 만족도가 낮았다.

또 직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38.5%를 기록해 전국 33%보다 5.5%포인트 높았다. 스스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령인 근로가능연령의 경우 평균 71.9세였으며, 은퇴에 적합한 연령으로는 69.1세로 답했다.

이는 현재 법적 정년인 60세와 비교해 약 10세가량 차이가 났다.

부산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창업 기회를 확대해 고령자의 사회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히”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그린닥터스 국제진료소 설립 20주년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도 찾아…“국경 넘는 인류애 실천”



그린닥터스 외국인국제진료소 설립 20주년

국적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네팔, 몽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는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들도 그린닥터스 외국인 국제진료소를 찾고 있다.

그린닥터스는 매주 일요일 오후 부산부산진구 당감2동 온종합병원 6층에 외국인 국제진료센터를 개설하고 안과·치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내과 진료를 하고 있다.

약사 등으로 구성된 약제부도 운영하면서 투약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은 “정치·종교·인종·국경을 뛰어넘어 인류애를 실천한다는 가치로 출범한 그린닥터스가 설립 이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봉사활동 분야가 외국인 국제진료센터”라며 “앞으로도 인류에 실천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봉사의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백선연 기자

속초시, 해맞이 명소 특별 교통 대책 추진



강원 속초시는 주요 해맞이 명소의 교통체증에 대응하고자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포항~속초해수욕장~동명·사진항 등 교통혼잡 예상지점에 기관·단체별 근

무자 100여명을 배치해 주차장 만차 시 해수욕장 진입로 통제 및 우회를 유도하며 보행자 안전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일출 직후 진출 차량의 분산을 유도해 병목현상으로 인한 정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연말연시 지역 주요 해맞이 명소에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측, 해변 인근 도로변 불법주정자 및 일출 후 인파와 귀경차량의 병목현상 등으로 교통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속초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과 대책 회의를 열어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 임현주 기자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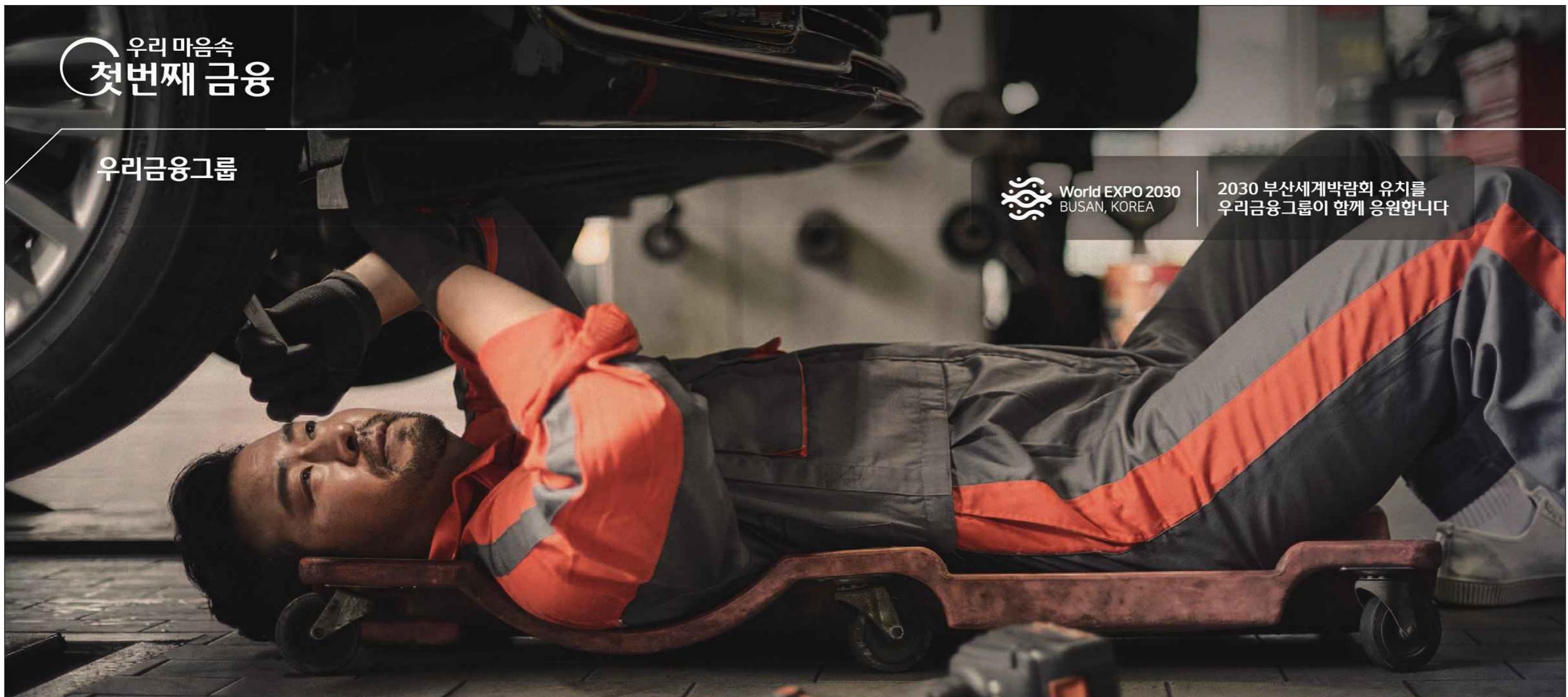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온창한 숲을 이루듯
비우한 토양에서
건전한 정치후원금이
성장합니다.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종
다액 이하

후원한도 :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더 날개 돋칠 힘

우리 청년, 더 어깨 펼 힘

우리 자영업자, 더 오래 걸을 힘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에게
우리은행이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클린스만은 64년 만의 우승약속 지킬까…26일부터 아시안컵 모드

26일부터 국내 소집훈련·28일 최종 명단 발표…내달 2일 출국

한국 축구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위르겐 클린스만(59·독일) 감독은 지난 3월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취임 인터뷰에서 '아시안컵 우승'을 국내 팬들에게 공약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의 16강 진출을 지휘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의 뒤를 이어 지난 2월 태극전사의 선장을 맡은 클린스만 감독 역시 아시안컵 우승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클린스만 감독의 출발은 그리 좋지 않았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태극전사들을 조련한 클린스만 감독은 5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이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축구협회가 1992년 A대표팀 전임 감독제를 도입한 이래 부임 후 5경기 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첫 번째 사령탑이라는 오명을 썼다.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에 서 1-0으로 이기면서 첫 승리를 맞본 클린스만호는 이후 두 차례 평가전(튀니지 4-0 승·베트남 6-0 승)과 두 차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싱가포르 5-0 승·중국 3-0 승)까지 5연승 행진을 펼쳤다.



지난 10월 튀니지전 승리를 마치고 선수들을 격려하는 클린스만 감독

비록 상대 팀들이 비유럽권의 약체로 분류됐지만 '5연승+6경기 연속 무실점'은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냉정함을 유지했던 팬들의 기습을 어느 정도 녹이는 효과를 냈다. 예행연습을 끝낸 클린스만호는 이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한다. 바로 2023 AFC 아시안컵(2024년 1월 12일~2월 10일·카타르)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인 클린스만호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바레인(랭킹 86위·역대 전적 11승 4무 1패), 요르단

(랭킹 87위·역대 전적 3승 2무), 말레이시아(랭킹 130위·역대 전적 26승 12무 8패)와 조별리그 E조에서 경쟁한다.

클린스만호는 랭킹 차이도 크지만, 상대 전에서도 일방적으로 앞서는 만큼 E조 1위 자리를 손쉽게 따낼 전망이다.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클린스만호의 청사진도 이미 공개됐다.

대표팀은 26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국내 소집훈련을 시작하며 아시안컵 준비에 나선다.

'아시안컵 모드'로의 전환이다.

K리그 일정을 끝낸 국내파 선수들과 전반기 일정을 마친 해외파 선수들을 포함해 16명을 대상으로 26~31일 야외 훈련 없이 실내에서 체력 단련 위주로 컨디션 조절에 들어간다.

클린스만 감독은 28일 용산 CGV에서 2023 아시안컵에 나설 26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한 뒤 내년 1월 2일 전지훈련지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해 본격적인 우승 담금질을 시작한다.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김민재(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파 핵심 지원'들도 소속팀을 떠나 아부다비에서 클린스만호에 합류할 예정이다.

대표팀의 원톱 스트라이커를 맡아왔던 황희조(노리치시티)가 성행위 불법 활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표팀 선발에서 제외됐지만, 조규성의 골 감각이 물이 오른 상태라 큰 걱정은 없다.

클린스만호는 2023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2024년 1월 15일 오후 8시 30분 바레인과 1차전을 시작으로 1월 20일 오후 8시 30분 요르단, 1월 25일 오후 8시 30분 말레이시아와 차례로 대결한다.

/ 최준용 기자

여자배구 연말 2연전 승자는…흥국생명·정관장, 사활 건 총력전



20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경기. 흥국생명 선수들이 득점에 성공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정관장이 유판에서 3라운드 최종전을 치른 뒤 28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4라운드 첫 경기에 서 맞붙는다.

그 사이 흥국생명(승점 36·13승 4패)은 현대건설(승점 41·13승 5패)에 리그 선두 자리를 내줘야 했다. 특히 20일 현대건설 전 당시엔 팀 별실 29개를 쏟아내면서 마르첼로 아본단자 흥국생명 감독이 "끔찍한 경기였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24일 경기를 앞두고 만난 아본단자 감독은 "체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외의) 문제점을 다 같이 파악하고 싶어서 지난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과 얘기를 나눴다"면서 "오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본단자 감독은 "팀 분위기 문제는 아

니다"라면서 "정관장과는 항상 5세트까지 가서 이기기도 하고 져보기도 했다. 오늘도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주전 세터로는 커니션이 좋은 이원정을 내세운다고 밝혔다.

고희진 정관장 감독도 배수진의 자세로 이날 경기에 임한다. 5위 정관장(승점 24)도 최근 2연패에 빠져 3위 GS칼텍스(승점 31), 4위 IBK기업은행(승점 28)과의 중위권 다툼에서 뒤쳐졌다.

고 감독은 "여기서 1, 2패를 더 안으면 봄 배구가 많이 멀어진다"며 "선수들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시점이다. 벼랑 끝에서 있다는 생각으로 경기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선수 지오바나 밀라나(등록명 지아), 메가와티 퍼티위(등록명 메가)를 향해 "용병으로서 암박감, 부담감을 이겨내야 한다"며 활약을 기대했다.

/ 박정민 기자

오타니·야마모토 vs 다루빗슈·마쓰이

ML 서울개막전 화려하네

내년 3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공식 개막전은 일본 출신 슈퍼스타들의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최근 일본 선수들을 줄줄이 영입하면서 '서울 시리즈'가 '일본 스타 시리즈'로 변하는 분위기다.

다저스는 지난 10일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를 계약기간 10년, 총액 7억 달러의 역대 최고 대우로 모셔 왔다.

현시대 최고의 스타로 꼽히는 오타니는 다저스 선수들과 함께 내한해 내년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고척돔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와 개막전에서 다저스 데뷔전을 치를 계획이다.



원순 투수 마쓰이 유키와 계약했다.

2023년 라쿠텐 골든이글스에서 뛰었던 마쓰이는 올해 39세이브를 올렸고, 일본 야구대표팀 일원으로 활약했다.

내년 3월 고척돔서 개막전 치르는 다저스·샌디에이고, 일본 슈퍼스타 줄줄이 영입

오타니 한 명으로도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하지만, 다저스는 최근 또 한 명의 일본 출신 스타를 영입했다.

다저스는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투수 최대어로 평가 받은 일본 오른손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12년간 3억2천500만달러에 입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모토는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에서 3년 연속 퍼시픽리그 3관왕과 사와무라상을 훨씬 죄고의 투수다. 야마모토는 2024시즌 다저스 제1선발로 꼽히는 만큼 서울

시에서는 '서울 시리즈'에 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일본 매체 스포츠 호치는 24일 "내년 3월 한국에서 열리는 MLB 개막전에 사무라이 전사들이 대집결한다"며 "올해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뛰었던 오타니, 야마모토, 다루빗슈, 마쓰이가 경쟁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MLB 사무국은 지난 7월 2024 정규리그 공식 개막전을 내년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펼친다고 공식 발표했다.

MLB는 야구의 세계화와 홍보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개막전을 열었고, 내년엔 서울을 개막장소로 점찍었다. 매치업도 한국 야구팬을 위해 결정했다.

한국 선수인 김하성이 소속 팀 샌디에이고와 박찬호·류현진 등 한국 선수들이 거쳐 갔던 다저스가 '서울 시리즈'의 주인공이 됐다.

그런데 두 팀은 올겨울 일본 출신 슈퍼스타를 줄줄이 영입했고, 일본 매체, 팬들의 관심이 더 크게 폭발하고 있다.

/ 한주영 기자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함께 약속하고 함께 지킵니다

월급 2,060,740원
(주40시간 근무시)

'서울의 봄' 1천만 관객 돌파…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 탄생



'서울의 봄' 천만 한국 영화 반열 등극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24일 천만 영화의 반열에 올랐다.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이날 새벽 누적 관객 수 1천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지 33일째에 천만 영화가 된 것이다.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른 '서울의 봄'은 '노량: 죽음의 바다' 개봉 하루 전인 이달 19일까지 28일 연속 선두를 지키며 빠르게 관객 수를 늘

렸다. 올해 국내 개봉작으로는 '범죄도시 3'에 이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됐다. '범죄도시 3'가 7월 1일 1천만명을 돌파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서울의 봄'은 역대 개봉작으로는 31번째 천만 영화다. 한국 영화 중에선 22번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보면 '범죄도시 2'(2022), '아바타: 물의 길'(2022), '범죄도시 3'에 이어 네 번째 천만 영화다. 이 가운데 시리즈물이 아닌 영화는 '서울의

역대 31번째·한국 영화 22번째…팬데믹 이후 4번째
김성수 감독·정우성 첫 천만 영화…황정민은 3번째

'봄'이 유일하다.

김성수 감독이 연출한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사건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배우 황정민과 정우성이 주연 했다.

선악의 대결 구도 아래 12·12 군사반란의 진박감을 살려낸 이 영화는 2030 세

대를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다.

실 관람객의 평가가 반영된 CGV 골든에 그 지수는 개봉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도 99%로 최고 수준이다.

김 감독은 이 영화로 천만 감독의 대열에 합류했다. 첫 장편 '던어웨이'(1995), '범죄도시 3'에 이어 네 번째 천만 영화다. 이 데뷔한 김 감독은 '비트'(1997), '태양은 없다'(1999), '무사'(2001), '감기'(2013),

'아수라'(2016) 등으로 주목받았지만, 천만 영화는 없었다.

'서울의 봄'은 정우성의 첫 천만 영화이기도 하다. 그가 주연한 기존 영화 중 관객 수가 가장 많은 작품은 668만명이 관람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년)이었다.

황정민에게 '서울의 봄'은 세 번째 천만 영화다. 그는 천만 영화 '국제시장'(2014)과 '베테랑'(2015)에서도 주연했다.

천만 영화 '서울의 봄'의 최종 관객 수가 얼마나 될지도 극장가의 관심사다.

개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뒷심이 상당해 '범죄도시 3'(1천68만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서울의 봄'은 올해 개봉작으로는 최다 관객을 모은 작품이 된다.

/ 흥행설 기자



방탄소년단

BTS 입대에 기존 발표곡들 '역주행' “팬들 염원 모인 것”

'봄날', '아웃트로 : 티어' 등 주목
'옛 투 캠' MV 조회 수 급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전원이 군 공백기에 돌입하면서 이들이 과거 발표한 곡들이 차트 역주행을 펼치며 재조명받고 있다.

25일 소속사 베히트뮤직에 따르면 '봄날'(2017), '아웃트로 : 티어'(Outro : Tear·2018), 데뷔곡 '노 모어 드림'(No More Dream·2013)은 멤버들이 입대한 직후인 이달 13~15일 전 세계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차례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세 곡은 미국 빌보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도 처음 진입했다.

또 앤솔러지(선집) 음반 '프루프'(Proof)의 타이틀곡 '옛 투 캠'(Yet To Come·2022) 뮤직비디오는 이달 들어 유튜브 조회 수가 전월 대비 20% 이상 급증했으며, 지난 19일 유튜브 조회 수 2억건을 넘겼다.

베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의 기존 곡

들의 뮤직비디오 조회 수 역시 이달 10일 기점으로 상승세를 떴다"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Best moment is yet to come)는 '옛 투 캠'의 가사처럼 전 세계 팬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팀이 공백기에 돌입하면서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들이 이들의 기존 발표곡을 찾아 듣고 있다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이달 11일 RM·뷔, 12일 지민·정국까지 입대하며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팀 활동 재개를 약속한 2025년까지 입대 전 준비한 콘텐츠를 하

나들 공개하며 기다리는 팬들을 달래줄 계획이다.

앞서 지민의 팬송 '클로저 댄 디스'(Closer Than This)와 디즈니+ 다큐멘터리 '방탄소년단 모뉴먼트 : 비욘드 더 스타'(BTS Monuments: Beyond The Star)가 공개됐다.

/ 임채원 기자

1열서 다시 즐기는 블랙핑크…내일 VR 앙코르 콘서트



베놈'(Pink Venom) 같은 히트곡을 메들리로 약 70분간 들려준다.

YG는 "이번 VR 콘서트는 고척스카이돔 맨 앞줄에서 촬영돼 1인칭 시점에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블랙핑크의 콘서트를

가상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색 기회"라고 소개했다.

블랙핑크는 "우리의 음악을 더 많은 글로벌 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들려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VR 콘서트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인 투어의 연장선이니 팬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VR 콘서트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페인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 달간 다시 보기도 제공된다.

/ 박소희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시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 융성
행복 풍성

문화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SAMSUNG

Galaxy S23 FE

FE를 갖는 세상에 없던 구매방식**perFEct 프로그램****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색상과 모델은 국가 또는 통신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perFEct 프로그램] *혜택: KT 단말 약정 24개월 & 69이상 요금제 선택 시 공시지원금 받고 기입 및 개통 시 단말기 대금 84만7천원 중 42만4천원 즉시 할인, 24개월 후 S23 FE 반납 시 잔여 할부금 중 42만3천원 부분 납부 (VAT 포함가 기준) *방법: KT Shop에서 주문서 작성 시 'KT폰 구독' - '구독 2년형' 버튼에 체크 *자세한 사항은 KT.com 참조 *perFEct 베네핏은 정해진 기간내 Galaxy S23 FE를 신규 개통 후 쿠폰을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개통: 2023년 12월 8일~2023년 12월 31일 · 신청 및 등록: 2023년 12월 11일~2024년 1월 31일 (개통 D+3일 후 신청 가능, 최초 통화일 기준) *perFEct 베네핏 각 혜택별 쿠폰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갤럭시 스토어 '봉과: 스타레일' 상장지원팩: 2024년 1월 5일~2024년 6월 30일 CU 크리스마스 디저트 교환권: 2023년 12월 11일~2024년 1월 31일 CU 디저트 카테고리 50% 할인 쿠폰: 2024년 1월 1일~2024년 6월 30일 (최초 등록하면 매월 사용 가능)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쿠폰 다운로드 문의: 삼성닷컴 프로모션 고객센터 (1811-6043, 월~금 09~18시) | 쿠폰 등록/사용 문의: 갤럭시 스토어 (APP 내 문의) | CU 고객센터 (1577-8007, 월~금 09~18시)